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21호

2025년 2월

힘을 빼자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행 4:19-37)	전 준 덕	3
에베소서 읽기(9)	손 현 섭	15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	한 정 주	22
구원받은 여인들	조 규 철	27
로마 에클레시아(2)	최 정 일	34
누가복음 강해(84)	권 태 주 역	44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4

성서신애사

힘을 빼자

손 현 섭

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2025년 2월이 시작된다. 최근 쓰카모토의 글 중 공감 가는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집에 온 목수가 가르쳐주었다.

“톱질을 잘 하려면, 최대한 힘을 빼고 도구에 의지하라.”

신앙도 그렇다.

악한 신을 섬기면

노력도 하고, 수양도 하고,

온갖 힘을 동원한다.

나는 교사 시절 우연히 탁구 클럽활동을 맡은 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탁구를 즐기고 있다.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최소 준우승을 하는 실력인데도 레슨을 해주는 코치는 내가 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분이 말하는 대로 자세를 잡으면, 슬쩍 툭 쳐도 공이 힘 있고, 정확하다. 그런데 시합만 나가면 승부욕에 사로잡혀 무리를 하나 보 다. 끝나고 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피곤하다.

쓰카모토 선생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고상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기독교는 사랑이라 배웠으니,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분께 나의 장래 일을 다 맡겨 버리자. 오늘 하루는 주께서 보내 주신 성령이 이끄시도록 내어 주자. 나는 힘을 빼고 조용히 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4:19-37)

전 준 덕

19절 : ὁ δὲ Πέτρος καὶ Ἰωάννης ἀποκριθέντες (εἶπον) πρὸς αὐτὸς οὐς εἶπον, Εἰ δίκαιόν ἐστιν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ὑμῶν ἀκούειν μᾶλλον ἢ τοῦ θεοῦ κρίνατε,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와 이오안네스가 대답하여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주) 1. ἀποκριθέντες : ἀποκρίνομαι(ἀπό+κρίν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복, 주격. (3:12)

2. δίκαιον : δίκαιος(옳바른, 의로운, 정당한, 정직한, 착한, 공의로운)의 제1, 제2, 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3. μᾶλλον(부) (μάλα의 비교급) : (더욱더, 오히려, 도리어, 더 많이, 더 확실히)

4. κρίνατε : κρίνω(비음동사)의 제1과, 능동, 명령, 복, 2인칭. (3:13)

20절 : οὐ δυνάμεθα γὰρ ἡμεῖς ἂν εἶδομεν(εἶδαμεν) καὶ ἠκούσαμεν μὴ λαλεῖν.

사역 :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주) 1. ἠκούσαμεν : ἀκούω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1인칭. (1:4)

2. εἶδομεν : ὁράω(단축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1인칭. (2:3)

21절 : Οἱ δὲ προσαπειλησάμενοι ἀπέλυσαν αὐτούς, μηδὲν εὐρίσκοντες τὸ πῶς κολάσωνται αὐτοὺς διὰ τὸν λαόν, ὅτι πάντες ἐδόξαζον τὸν θεὸν ἐπὶ τῷ γεγονότι.

사역 : 이제 저들은 백성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징계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저들을 더욱 협박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 1. προσαπειλησάμενοι : προσαπειλέω(πρός+ἀπει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더욱 위협하다, 더 협박하다, 또 다시 공갈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분, 복, 주격.

2. ἀπέλυσαν : ἀπολύω(ἀπό+λύ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3:13)

3. εὐρίσκοντες : εὐρίσκω(찾다, 얻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만나다, 알아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4. κολάσωνται : κολάζω(벌하다, 벌주다, 억압하다, 징계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가정, 복, 3인칭.

5. ἐδόξαζον : δοξάζω의 미완, 능동, 직설, 단, 1인칭(복, 3인칭). (본절은 복, 3인칭)

6. γεγονότι : γίνομαι의 제2완료, 능동, 분, 남(중), 단, 여격(본절은 중성). (1:16)

22절 : ἐτῶν γὰρ ἦν πλειόνων τεσσαράκοντα(τεσσεράκοντα) ὁ ἄνθρωπος ἐφ' ὃν ἐγεγόνει(γεγόνει) τὸ σημεῖον τοῦτο τῆς ἰάσεως.

사역 :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사십 세쯤 이상 보였습니다.

주) 1. ἔτων : ἔτος(해, 년)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소유격.

2. πλειόνων : πλείων의 남(중), 복, 소유격(본절은 중성). (2:40)

3. ἐγγέγονει : γίνομαι의 과완료, 중간, 직설, 단, 3인칭. (1:16)

4. ἰάσεως : ἰασις(치유, 고침)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23절 : Ἀπολυθέντες δὲ ἦλθον πρὸς τοὺς ἰδίους, καὶ ἀπήγγειλαν ὅσα πρὸς αὐτοὺς καὶ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εἶπον.(εἶπαν.)

사역 : 이제 사도들은 자유의 몸이 되자 동료들에게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빠짐없이) 보고하였습니다.

주) 1. ἀπολυθέντες : ἀπολύω(ἀπό+λύ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복, 주격. (3:13)

2. ἰδίους : ἴδιος의 남, 복, 대격. (1:7)

3. ἀπήγγειλαν : ἀπαγγέλλω(ἀπό+ἀγγέλλω의 합성동사) (알리다, 보고하다, 통지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4. ἀρχιερεῖς : ἀρχιερέως의 복, 주격. (4:6)

24절 :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ἦραν φωνὴ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εἶπον.(εἶπαν,) Δέσποτα, σὺ ὁ θεὸς ὁ ποιήσα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καὶ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πάντα τὰ ἐν αὐτοῖς,

사역 : 이제 이 말을 들은 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

어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주) 1. δέσποτα : δέσποτης(주인, 주권자, 소유자, 노예의 주인, 주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호격.

25절 : ὁ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διὰ στόματος Δαβὶδ(Δανὶδ) τοῦ παιδός σου εἰπών, Ἰνατί ἐφρύαξαν ἔθνη, καὶ λαοὶ ἐμελέτησαν κενά;

사역 :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다비드 입을 통해 말씀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가로막으며 백성이 무익한 일들을 구상하였으리요?

주) 1. παιδός : παῖς의 단, 소유격. (3:13)

2. ἰνατί(ἶνα+τί의 합성어) (부) :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3. ἐφρύαξαν : φράσσω(달다, 막다, 가로막다, 멈추게 하다, 통과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4. ἔθνη : ἔθνος(군중, 나라, 민족, 백성, 인민)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본질은 주격).

5. λαοί : λαός의 복, 주격. (2:47)

6. ἐμελέτησαν : μελετάω(단축동사) (조심하다, 돌보다, 마음을 쓰다, 연습하다, 연마하다, 개발하다, 애쓰다, 힘쓰다, 노력하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근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7. κενά : κενός(빈, 헛된, 내용 없는, 근거 없는, 무익한,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유익 없는, 공연한, 어리석은, 의식 없는, 무감각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복, 주(대)격(본질은 대격).

26절 : παρέστησαν 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 καὶ οἱ ἄρχοντες συνήχθησαν ἐπὶ τὸ αὐτὸ κατὰ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κατὰ τοῦ Χριστοῦ αὐτοῦ.

사역 : 세상의 왕들이 앞으로 다가왔으며 지배자들이 주님을 거스르고 그의 크리스토스를 대적코자 그의 곁으로 함께 몰려들었소이다.

주) 1. παρέστησαν : παρίστημι(παρά+ῖ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1:3)

2. βασιλεῖς : βασιλεύς(왕)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3. συνήχθησαν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4. ἐπὶ τὸ αὐτό : (같은 장소에, 다같이, ~에, ~곁에)의 전치사구의 속어.

5. κατὰ(전) (소유격과 대격 지배) (본절은 소유격 지배) : (아래로, 낮은대로, 안으로, ~에 이르는, 도처에, 널리, (2) ~을 걸고, ~을 두고, ~에 의하여, ~에 대하여, ~에게 거슬러, 대적하여)

27절 : Συνήχθησαν γὰρ ἐπ' ἀληθείας (ἐν τῇ πόλει ταύτῃ) ἐπὶ τὸν ἅγιον παῖδά σου Ἰησοῦν, ὃν ἔχρισας, Ἡρώδης τε καὶ Πόντιος Πιλαῦτος, σὺν ἔθνεσιν καὶ λαοῖς Ἰσραήλ,

사역 : 자! 진정 저들은 헤로데스와 폰티오스 필라토스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스님에게

주) 1. ἀληθείας : ἀληθεία(진실, 참, 진리, 실제)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2. ἅγιον : ἅγιος의 남, 단, 대격. (1:2)

3. ἔχρισας : χρίω(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2인칭.

4. ἔθνεσιν : ἔθνος의 복, 여격. (4:25)

5. λαοῖς : λαός의 복, 여격. (2:47)

6. ἐπ' ἀληθείας : (참말로, 진정, 진심으로)의 속어.

28절 : ποιῆσαι ὅσα ἡ χεὶρ σου καὶ ἡ βουλή σου προώρισεν γενέσθαι.

사역 :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정한 것을 행하고자 함께 모였소이다.

주) 1. ποιῆσαι : ποι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부정사. (1:1)

2. βουλή : (의도, 뜻, 의견, 의향, 동기, 목적, 결정, 결의)의 제1변화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3. προώρισεν : προορίζω(πρό+ορίζω의 합성동사) (미리 한계를 정하다, 결정하다, 예정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 27-28절은 한 문장)

29절 : καὶ τὰ νῦν, κύριε, ἑπίδε ἐπὶ τὰς ἀπειλὰς αὐτῶν, καὶ δὸς τοῖς δούλοις σου μετὰ παρρησίας πάσης λαλεῖν τὸν λόγον σου,

사역 : 주님이시여! 지금도 저들의 위협에서 감찰을 비오며 당신의 종들에게 담대히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1. καὶ τὰ νῦν : (지금도)의 속어.

2. ἑπίδε : ἐπιβλέπω(ἐπί+βλέπω의 합성동사) (쳐다보다, 바라보다,

자세히 보다, 감찰하다, 유심히 보다, 유의하다, 걱정하다, 동정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명령, 단, 2인칭.

3. ἀπειλᾶς : ἀπειλή의 복, 대격. (4:17)

4. δός : δίδωμι의 제2과, 능동, 명령, 단, 2인칭. (1:26)

5. πάσης : πᾶς의 여, 단, 소유격. (1:1)

30절 : ἐν τῇ τὴν χειρὰ σου ἐκτείνειν σε εἰς ἰᾶσιν, καὶ σημεῖα καὶ τέρατα γίνεσθαι διὰ τοῦ ὀνό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αιδός σου Ἰησοῦ.

사역 : 당신의 손으로 내밀면 당신께서 치료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거룩하신 이예수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1. ἐκτείνειν : ἐκτείνω(ἐκ+τε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내밀다, 내뻗다, 손을 펴다, 주다, 닳을 내리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2. ἰᾶσιν : ἰᾶσις의 단, 대격. (4:22)

31절 : καὶ δεηθέντων αὐτῶν ἐσαλεύθη ὁ τόπος ἐν ᾧ ἦσαν συνηγμένοι,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ἅπαντε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ἐλάλουν τὸν λόγον τοῦ θεοῦ μετὰ παρρησίας.

사역 : 이제 저들이 구하는 기도가 끝나게 되자 함께 모여 있던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주) 1. δεηθέντων : δέω(δέιουαι) (구하다, 간구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결집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복, 소유격.

2. ἐσαλεύθη : σαλεύω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2:25)

3. συνηγμένοι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복, 주격. (4:5)

4. ἐλάλουν : λαλέ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4)

32절 : Τοῦ δὲ πλήθους τῶν πιστευσάντων ἦν ἡ καρδία καὶ ἡ ψυχὴ μία· καὶ οὐδὲ εἷς τι τῶν ὑπαρχόντων αὐτῷ ἔλεγεν ἴδιον εἶναι, ἀλλ' ἦν αὐτοῖς ἅπαντα κοινά.

사역 :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무엇이든 하나도 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용하였습니다.

주) 1. πλήθους : πληθος의 단, 소유격. (2:6)

2. πιστευσάντων : πιστεύω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2:44)

3. ὑπαρχόντων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2:30)

4. ἅπαντα : ἅπας의 중, 복, 주(대)(본절은 주격). (2:1)

5. κοινά : κοινός(일반적인, 공통적인, 공공의, 공중의, 평범한, 보통의, 불결한, 더러운, 깨끗이 않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복, 주(대)(본절은 주격).

33절 : καὶ (δυνάμει) μεγάλη δυνάμει ἀπεδίδουν τὸ μαρτύριον οἱ ἀπόστολοι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άρις τε μεγάλη ἦν ἐπὶ πάντας αὐτούς.

사역 :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이예수스의 부활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주) 1. ἀπεδίδουν : ἀπεδίδωμι(ἀπό+δίδωμι의 합성동사) (내어 주다, 넘겨주다, 수여하다, 부여하다, 주다, 지불하다, 청산하다, 팔다, 값다, 보상하다, 돌려주다)라는 ~μι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 μαρτύριον : (증거, 증명, 증언)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본절은 대격).

3. ἀπόστολοι : ἀπόστολος의 복, 주격. (1:26)

34절 : οὐδὲ γὰρ ἐνδεής τις ὑπῆρχεν (ἦν) ἐν αὐτοῖς· ὅσοι γὰρ κτήτορες χωρίων ἢ οἰκιῶν ὑπῆρχον, πωλοῦντες ἔφερον τὰς τιμὰς τῶν πιπρασκομένων,

사역 : 그래서 저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토지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팔아 그 판 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 1. ἐνδεής : (가난한, 결핍한, 부족한)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

2. ὑπῆρχεν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2:30)

3. ὑπῆρχον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30)

4. κτήτορες : κτήτωρ(소유자, 주인)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5. χωρίων : χωρίον의 복, 소유격. (1:18)

6. οἰκιῶν : οἰκία(집, 재산, 가족, 식구)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

사의 복, 소유격.

7. πωλοῦντες : πωλέω(단축동사) (팔다, 매매하다, 거래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8. ἔφερον : φέρω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2)

9. τιμάς : τιμή(값, 가치, 평가, 비싼 물건, 존경, 공경, 명예, 사례금, 보상)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대격.

10. πιπρασκομένων : πιπράσκω의 현, 중(수), 분, 중, 복, 소유격. (2:45)

35절 : καὶ ἐτίθουν παρὰ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διεδίδοτο (διεδίδετο) δὲ ἐκάστω καθότι ἄν τις χρεῖαν εἶχεν.

사역 : 매매한 사람들이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분배해 주었습니다.

주) 1. ἐτίθουν : (3:2)

2. πόδας : ποὺς의 복, 대격. (2:35)

3. διεδίδοτο : διαδίδωμι(διά+δίδωμι의 합성동사)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μι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단, 3인칭.

4. ἐκάστω : ἑκαστος의 남, 단, 여격. (2:3)

5. καθότι(κατά+ὅτι의 합성어) : (~만큼, ~같이, 때문에, 왜냐면, ~란 사실로 보아서)

36절 : Ἰωσῆς (Ἰωσήs) δὲ ὁ ἐπικληθεὶς Βαρναβᾶς ὑπὸ (ἀπό)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ὃ ἐστὶν μεθερμηνεύμενον, υἱὸς παρακλήσεως, Λευίτης, Κύπριος τῷ γένει,

사역 :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바르나바스”라 칭함을 받은 이오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권위 있는 자손”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퀴프리오스 출신인 류이테스(레위족 사람)족 사람이었습니다.

주) 1. ἐπικληθεῖς : ἐπικαλέω(ἐπί+κα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2:21)

2. μεθερμηνεύμενον : μεθερμηνεύω(μετά+ἐρμηνεύω의 합성동사)(번역하다, 해석하다, 통역하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분,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3. παρακλήσεως : παρακλήσις(παρά+κλήσις의 합성어) (권면, 권고, 간구, 간청, 청원, 위로, 위안, 격려)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4. γένει : γένος의 단, 여격. (4:6)

37절 : ὑπάρχοντος αὐτῷ ἀγροῦ, πωλήσας ἤνεγκεν τὸ χρῆμα καὶ ἔθηκεν παρά(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τῶν ἀποστόλων.

사역 : 이 사람에게 토지가 있는데 그 소유를 팔아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 1. ὑπάρχοντος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소유격. (2:30)

2. ἀγροῦ : ἀγρός(들, 밭, 토지, 농가, 시골, 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3. πωλήσας : πω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4:34)

4. ἤνεγκεν : φέρω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2)

5. χρῆμα : (필요한 것, (복) : 소유, 부, 재산, 돈, 수입, 자력)의 제3변

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절은 대격)

6. ἔθηκεν : τίθημι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7)

【1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2줄	사도행전 4:1-26	사도행전 4:1-18
3쪽20줄	(διά+πονέομαι의 합성어)	(διά+πονέομαι의 합성동사)
5쪽1줄	πολλοὶ	πολλοί
11쪽17줄	저들은	저들로

에베소서 읽기 9

(지혜와 총명)

손 현 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1:8-9).

1. 들어가며

앞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하나 차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그 신령한 온갖 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도 돌아보자.

-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오늘은 이에 더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넘치게 주셨다고 한다.

2. 본문 살피기

1)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시기를 바라는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 총명 같은 말이 아닌가? 먼저 지혜와 총명의 개념을 알아보자.

영어성경(NIV)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wisdom and understanding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 지혜, σοφία(sophia), wisdom

사물의 본질에 관한 지식과 개념을 아는 것

- 총명, φρονεῖς(phronêsis), understanding

사물의 상태, 현황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총명함이 지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지 성서에서는 ‘안다, 생각한다’는 개념을 총명함으로 표현한 사례가 많다. 우리가 아는 총명은 머리가 좋다, 명석한 두뇌, 이런 개념인데 헬라어에서는 상황을 두루 파악하는 힘을 총명함, phronêsis(프로네시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①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한 뒤 일어났던 일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니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간청하였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대화에 나오는 “생각한다(φρονεῖς)”는 단어가 바로 깊이 심사숙고하는 행위로서의 총명함을 뜻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의미다. 즉 총명하지 않다고 꾸짖은 것이다.

② 로마서 8: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의 ‘생각한다(φρονοῦσιν)’도 앞서서와 같이 총명함을 의미한다. 즉 상황 전체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이해를 뜻한다.

③ 또 골로새서 3:2, 위엣 것을 생각하라(τὰ ἄνω φρονεῖτε, μὴ 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에서 생각하라는 단어 φρονεῖτε가 쓰이고 있다. 이 말 역시 총명하다는 뜻이다. 지혜는 지성과 이해의 과제다. 총명은 감성뿐 아니라 이지(理智)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해력, 통찰력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는 건, 모든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 통찰력, 총명함은 말하자면 ‘영적 분별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열정과 감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 영혼, 전체, 전인(全人)을 통하여 나타난다. 내 감성과 내 이해관계나 내 사랑이나 내 전 존재가 그것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다.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바라게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 그것도 ‘넘치게’! 당연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 감사다!

2)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9절에서 눈의 띄는 것은 ‘뜻’이라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뜻’,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다. 뜻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계획이며 의지다. 감추어 있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뜻’이다. NIV는 will(의지)과 purpose(목표하다)로

표현한다.¹⁾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하신, 신비로운 그의 의
지를 알려주셨다는 말이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

1)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뜻’은 수식어가 장황하여 언뜻 명확하지가 않다. 중요한 단어는
‘미리 세우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한 뜻을 미리 세우셨다. 이것이 중심문장이다. 그런데, 그
뜻을 작성할 때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한 뜻을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겁게 작성하였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목자
들에게 전한 소식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지를 읽을 수다.

내가 오늘 사람들을 향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
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쁨 그대로 우리를 위해 한 뜻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려
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의 신비한 뜻에서 mystery, μυστήριον(뮌스테리온)은 비밀, 신비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감춰져 있었
던 비밀’이라는 의미로 썼다. 우리 성경은 이를 ‘신령한’으로 번역하여 비
밀보다는 거룩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

1)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이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는 의문이 절로 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비밀을 자진하여 알리고 싶은 게 아닌가. 자녀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깊이 감춰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숨어있는 진리가 아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정하신 영적인 일들을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을 잘 표현한 대목이다.

조명한 교수도 이 부분이 희망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감탄하였다.

“택하심, 예정하심, 그의 의지의 기쁨심, 은혜의 풍성함에 이어 ‘신비’가 나타난다. 바울 서한에서 이 신비가 쓰인 장면은 어디서나 비슷한 문맥의 구성을 보인다.(롬16:25 , 골 1:25)

한 예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비밀(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고전 2:6-7).’를 읽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의 문맥과 상통함을 직감한다. 신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계획하셨던 것이고,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구원의 실현의 신비이다. 영세전부터 감춰있던(롬 16:25) 이 신비를 “죄 사함을 받은”(1:7)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셨다.”

이 신비를 오래 감추셨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셨다. 조 교수는 이 비밀이 ‘구원의 실현’이라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인류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뜻’이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신령한 비밀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도록 가르쳐주시기로 하였다. 그 비밀(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다. 그 덕분에 나같이 우둔한 자도 하나님

의 비밀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신 지혜와 총명함 때문이다.

이 8절과 9절은 주의 계시를 말하는 부분이다. 죄 아래 노예가 된 자가 (롬 6:7)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도 부서지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롬 6:3-11),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속죄 즉 죄 사함을 얻었다. 참으로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본을 상기시키는 것 같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풍성한 은혜를 따라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속죄, ἀπολύτρωσις(아폴루트로시스)는 원래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다시 사오는 거래 행위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²⁾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자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억압받았던 신체의 자유를 얻게 된 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ἀπολύτρωσις였다.

그런데 구로사키 선생은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죄를 사하는 대가로서 지불되었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의를 준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대가 물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로 충분하다.

3. 소감

하나님의 “비밀”은 본래부터 인간의 이지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비한 비밀을 드러내

2) https://kurosaki-commentary.com/kurosaki_frame.cgi?49+1+2-1

보여주셨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지혜와 총명함을 주어 하늘의 비밀을 알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다. 풍성한 은혜 그 자체이다.

아아, 그래서 나 같은 자도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감사할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파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 비밀을 알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은지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내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 인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세세에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로마서 11장)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시편 11편)

한 정 주

개역한글, 제 11 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데서 쏘려 하는도다
-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 5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 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 7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1. 톨슨성경

이 시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하던 때로(삼상18:11, 19:10),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이다.

11:1 도망하라 함은 어쩔인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친구들이 그에게 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니 무슨 말인가라는 뜻이다.

11:2 겁많은 시인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시인에게 도주할 것을 권유하였다. 왜냐하면 시인이 아무리 여호와께로 피한다 하더라도 악한 자의 공격은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1:4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당시에 자신이 도망 다녀야만 하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의 신앙을 잃지 아니했다. 즉 비록 도망 다니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감찰하시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영적인 안목을 잃지 아니했던 것이다.

2. 유희세, 11편

- 1 야하웨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자네는 왜 내게 말하는가?
“어린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 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긴다”고,
“활줄에 화살을 대고 겨누고 있고,
어두움 속에서 마음 곧은 사람을 쏘려고 한다”고,
- 3 “터가 무너지니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고.
- 4 야하웨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야하웨,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눈은 인간을 지켜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인간을 재보십니다.
- 5 야하웨는 의인도 악인도 재보십니다.

폭력을 사랑하는 놈들을 야하웨는 진정 증오하십니다.

6 그는 악인 위에 숯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퍼붓습니다.

그들의 잔에는 타는 바람이 그들의 몫입니다.

7 야하웨는 의로우시며, 의를 사랑합니다.

마음 곧은 사람은 야하웨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시편, 율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4쪽)

3. 석진우, 11편 고난 중의 신뢰

시인은 제일 먼저 자신은 야하웨에게만 의지한다고 말한다. 이 용감한 노래의 배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음험(陰險)한 폭력행사로 시인과 같은 지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근심한 친구들이 그에게 산으로 도피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아 야하웨만을 의지한다고 신앙고백 한다. 시인은 하나님에의 신뢰에 의해 친구들의 겁에 질린 태도를 물리치고 왜 자신은 조용히 미래를 대망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한다(4-7절).

시인은 그를 압박하는 인간적 위험과 두려움을 몽땅 던져 버리고, 아주 다른 차원으로 눈을 돌린다. 자신을 하나님에 의한 토대로 옮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은 극복되며, 그 찬미 안에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불안과 지상의 고난을 극복시키는 신앙의 힘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시인은 지상만사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믿는 자를 위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시편 노우트 상(上), 석진우 엮어 지음, 도서출판 성실문화, 65-67쪽)

4. 맺으며

유난히도 다사다난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이 참 많은 한해였다. 새해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생이란 나그네의 여행 과정인 듯싶다. 그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프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발표한 시편 11편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는 적들이 목숨을 노리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처지에 놓인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시이다. 1-3절은 친구의 조언, 4-7절은 다윗의 답변이다.

이 시 1절은 여호와가 피난처라고 말하는 믿음의 왕 다윗에게 나약한 친구가 어리석은 조언을 한다. 위태로운 새가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반사적으로 황급히 하늘로 날아가 도망쳐버리듯이 다윗도 재빠르게 산으로 피하라고 한다. 이 방법은 아주 쉬운 길이어서 당장의 위험한 고비는 넘기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도 친구의 말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갑갑해 하는 친구에게 시인은 4-7절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나의 피난처가 왜 오직 여호와이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한다. “여호와와는 그의 성전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의 눈으로 사람을 두루 살피시고 그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셔서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4-6절)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또 말

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7절)라고 말한다.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용기 있고 당당하게 맞서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올해도 다윗의 시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매일 여호와 앞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힘차게 부르기를 기도한다.

구원받은 여인들

조규철

성경 - 히11:35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원받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의 과부 (왕상 17장)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가서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아침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채 얼마간 지나자 개울 물 마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르밧(신약시대 지명은 사렙다)은 이방지역으로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야는 곧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마을에 들어섰는데 한 여인이 땀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보통 땀감을 장만하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과부인 듯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건넵니다.

엘리야 ;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합니다.

엘리야 ;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주시오.

여인은 엘리야의 옷차림을 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믿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청을 들은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인 ; 구워 놓은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 ;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와 아들의 이 세상 마지막 먹을 음식을 나눠 달라니, 또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니. 그러나 여인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지 엘리야의 요청대로 시행합니다.

엘리야는 가뭄 기간 동안 과부의 집에 머물렀고,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병세는 심하여져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들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엘리야를 붙잡고 한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의 잠자리에 아이를 눕였습니다. 엘리야는 야훼를 향하여 소리쳐 부르며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아이의 몸에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는 살아났고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진실한 야훼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과부는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뭄 기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들어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사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과부의 기름병 (왕하 4:1~7)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였습니다. 이 과부가 어디에 사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과부 : 선생님의 제자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야훼를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에게 빛을 주었던 사람이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 :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집안에 남아 있는 게 무엇이오?

과부 : 집안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 돌아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으로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어다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차례차례로 가득히 따라 부으시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우자 기름이 나오기를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오.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가 함께 살 수 있을 것ियो." 하고 말하였습니다.

수넴의 여인 (왕하 4:8~37, 8:1~6)

엘리사의 거처는 갈멜산에 있었고 주 활동지는 사마리아 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갈멜산과 사마리아 사이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넴은 갈멜산에서 24km쯤 떨어진 곳이어서 갈멜산에서 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어가고 싶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넴에 한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넴을 이따금 지나가는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를 유심히 보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엘리사를 대접하고 싶으면서 자기 집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엘리사는 그 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설득하여 옥상에 작은 옥탑방까지 만들어서 엘리사가 외부에서 자유롭게 그 방에 드나들며 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방 안에는 침대, 상, 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시켜 여인을 불러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드려 줄 수도 있는데, 무슨 아쉬운 일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

저는 이렇게 한 백성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며 특별히 부탁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 여인의 배려는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환 게하시가 말하기를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오라고 한 다음, "내년 이맘때 부인께서는 아이를 낳아서 안게 될 것이오."하였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농담하시느냐고 대꾸하였지만 과연 다음 해에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자기의 아버지가 농군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 데로 나갔다가 갑자기 "아! 머리야, 머리야" 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쳐, 아버지는 함께 있던 하인더러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 아이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엘리사가 묵는 방에 올라 가 그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인 한 사람과 함께 급하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사정을 파악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며 가는 도중에 누구와도 인사하지 말고 급하게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엘리사가 살아 있는 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앞서 간 게하시가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

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있는 옥탑방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야훼께 기도드리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포개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일곱 번 거듭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 살아난 아이를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지역에 야훼께서 칠년 기근을 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집へ가서 "당신의 집안을 이끌고 즉시 떠나, 당신이 몸붙여 살 만한 데를 찾아가 사시오. 야훼께서 칠 년 기근이 이 땅에 내리리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기근이 이미 닳쳤소."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곧 집안을 이끌고 떠나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칠 년 동안 살았습니다. 칠년이 다 지나자 여인은 수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자기 땅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왕에게 가서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 달라고 청을 올렸습니다.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이룬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그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 달라고 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임금님,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 선생께서 살려 준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그것이 사실이냐고 여인에게 확인하자 여인이 인정합니다. 왕은 어명을 내립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땅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소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표준새번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가 있는데, 이는 오늘 말씀드린 사르밧 과부와 수넴의 여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나라(외국) 사렘다(구약시대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어졌다고 오늘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명의 여인은 모두 살아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원은 외국 여인에게도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훼의 구원은 믿는 자는 누구나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모두 같은 뜻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로마 에클레시아(2)

최 정 일

3. 로마 에클레시아의 구성과 신앙의 경향

○ 바우어 시대 이전까지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대다수는 이방 민족 출신이었고 따라서 그 신앙의 경향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것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다. 이 추정은 주로 로마서 자체의 여러 구절들에 기인한다.

○ 그러나 바우어는 그 논문에서, 「이 견해를 따른다면, 로마서의 집필 목적과 구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즉 그는 「로마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신자의 에클레시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적 에클레시아의 신앙적 경향을 수정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집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바우어는 로마서의 여러 구절들을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해석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뤼쓰, 티어쉬, 만골트, 쉘켈, 사바티어, 홀쯔만, 폴크마르, 홀스텐 등).

심지어 톨록[Tholuck]조차도 그의 <로마서 주해>에서 바우어 등의 튀빙엔[Tuebingen]학파의 추론을 승복하고 로마서의 설명을 위해서도 비록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로마에 존재했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필리피[Philippi]도 비슷한 양보를 했고, 이제 최근[고대의 <로마서 주해>가 나오기 3년 전]에는 홀쯔만[Holtzmann]도 「바우어의 주장은 거의 반대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 그러나 테오도레 쇼트[Theodore Schott]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신앙적 경향과 구성에 대한 견해에 많이 양보하면서도, 「로마 에클레시아 안에는 그 다수가 이방 민족 그리스도신자들이었다」라고 열렬히 주장했다.

그 이후 여러 명의 성서학자들이 쇼트와 같은 견해를 주창했다[리겐바흐, 호프만, 디치, 마이어].

심지어 힐겐펠트[Hilgenfeld]도 바우어의 견해를 수정하고 로마 에클레시아 안에 강력한 이방 민족 출신 그리스도신자들이 존재했고, 따라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과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슐츠[Schultz]와 바이체크[Weizsaecker]는 「로마 에클레시아 안에는 이방 민족 그리스도신자의 요소가 그 수와 양과 중요성과 세력 등에서 우세했다」라고 선언했다.

○ 결국 <화해와 조정의 시도>가 기대되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시도는 바이실라크[Beyschlag]에 의하여 행해졌는데, 즉 「1)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기술하는 대로, 이방 민족 출신이었고, 2)이들은 유대주의자들과 견해를 같이 했는데, 왜냐 하면 그들은 그 전에 개종자[=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로의 개종자:proselytes]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의 독자의 다수가 이방 민족 출신이었다」라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로마서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지하는 구절

① [롬 1:6-여러분도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② [롬 1:13-나는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③ [롬 11:13-이제 나는 이방 민족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 부정하는 구절

① [롬 2:17-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② [롬 4:1-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③ [롬 7:1-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 우리는 여기서 또한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인 이방 민족 출신의 유대주의화하는 신앙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로마서>의 구절들도 자세히 살피지는 않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유대주의화하는 신앙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구절:

① [롬 1:8-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롬 1:12-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③ [롬 6:17-18-(17절)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어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절)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④ [롬 14:1-15:13-<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8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사람에게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23절)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시 69:9]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6절) 한 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8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9절) 이방 민족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12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민족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민족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사 11:10(칠십인역)]했습니다. (13절) 희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⑤ [롬 16:19-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⑥ [롬 16:25-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

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 유대주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구절들: 율법의 의를 반대하는 모든 논쟁 부분을 말한다.

○ 우리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구성과 신앙적 경향>이라는 두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암시들을 가지고 있다:

1) 로마서 자체가 말해 준다: 즉 다른 사람이 세운 에클레시아 위에 또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울 사도의 원칙인데, 복음의 교훈적인 해설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 같은 편지를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속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면, 결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 에클레시아의 유래, 구성 및 신앙적 경향에 대하여 암시해 준다.

2)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우어는 사도행전의 기사[특히 28장]를 누가의 가공된 픽션이라고 배척하는데,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과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 그리스도신자들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신자의 신앙적 경향>을 가지는 것은 서로 양립될 수 없다고 본다.

3) 기원 64년의 네로 황제의 박해: 이 유형의 참극은 시나고그는 건드리지 않고 로마 에클레시아를 강타했다. 바이체커는 「만일 그리스도신자들이 단지 유대교의 일 분파로밖에는 로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대교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신자들 위에 떨어진 박해는 그 기원도, 경과과정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

4)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연금(투옥)생활을 시작할 때의 로마 에클레시아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

① [빌 1:12-30]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신자들의 활기없는 상태가 바울 사도 자신의 도착에 의하여 다시 깨어났다>고 기술한다:

「(12절)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13절)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절) 형제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전합니다 (18절)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나의 이 몸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 나에게서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서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25절)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26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랄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27절)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28절)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30절)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말한대[빌 1:15].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대답은 <그들은 로마 에클레시아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그것은 좋은 대답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 형제자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빌 1:14]에 대한 예외를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이 유대주의자들은 단지 소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로마 에클레시아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신자의 우세를 부정하는 명백한 증언이 있다. 바이체커는 이 명백한 증언을 자신의 논거로 삼고 있다.

5) 마가복음서의 구성

○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서는 로마에서 집필되었고 로마 에클레시아의 그리스도신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마가복음서에 담겨진, 1) 유대인의 관습들에 관한 세부적 설명들과 2) 구약성서의 인용이 거의 없는 점도, 마가가 로마 에클레시아의 유대인 독자들[이들이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라고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서를 썼다는 추정을 반박한다.

○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쓰여진 데 반하여, 예수님의 행위 위주로 쓰여졌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데, 아마도 기원 65년 내지 70년 사이 또는 기원 55년 내지 68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본다. 마가복음의 집필자는 요한 마가[Johannes Markus]

로 본다. 그는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청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전(傳)을 썼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처럼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선명하다.

○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관습들을 종종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 독자들이 비(非)유대인임을 암시해 준다. 마가복음은 행위의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요한 마가는 초기에는 바울 사도와 충돌이 있었으나, 뒤에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모두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대골 4:10-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마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받아들이십시오 [빌 24-나의 협력자인 마가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벧전 5:14-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마가복음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근거로는 1)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옮기고[막 3:17; 5:41; 7:34; 10:46 등], 2)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막 1:9; 7:3-4; 15:42]을 들 수 있다.

6) 로마의 클레멘트의 편지

○ 이 편지는 로마서보다 30여 년 뒤에 작성된 것으로 바이체커가 말하듯이, 모든 면에서 이방 민족 그리스도 세계의 정신을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하르나크[Harnack]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의 강한 영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리스도교관을 잘 보여 준다. 즉 그토록 짧은 기간 안에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큰 에클레시아가 바울 사도의 영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편지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우세한 이방 민족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된다.

7) 기원 2세기의 부활절 논쟁

○ 로마 에클레시아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수장으로서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에 확립된 유대교의 유월절의 의식(儀式)을 근절하려고 했다.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에서의 부활절 축하방식에 의하여 야기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은 니산달[=아비브달=3월말-4월초]14일 저녁 [이는 유대인이 율법을 준수하여 그들의 유월절 축제를 축하하는 시기와 일치함]에 거룩한 부활절 만찬을 축하한 사실에서였다. 확실히 만일 로마 에클레시아가 유대주의의 전통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면, 로마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에 확립된 유대교의 유월절의 의식에 반대하는 박멸운동의 선두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8) 로마의 카타콤지하 납골당

○ 카타콤의 명칭은 로마의 귀족들의 이름, 심지어는 황실의 황족들의 이름을 따르는데, 이로 미루어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로마의 상류층에게도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우어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논거로서, 힐라리[Hilary]의 다음의 말을 인용한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그리스도교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이 대조는 분명히 [힐라리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가 이방 민족이었다고 보았음을 보여 준다.

○ 그러므로 바우어가 주장한,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힐라리[기원 3세기 내지 4세기에 살았음]가 주장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신자 교사들이 로마인에게 심어 준 율법

주의적 경향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힐라리의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가 이방 민족이었고, 또한 반(反)유대주의적이었다는 견해는 정당한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힐라리가 도출해 낸 것이었다.

○ 결국 바이של라크[Beyschlag]의 말이 경청할 만하다. 왜냐면 힐라리는 그 어디에서도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신자들에 의하여 회심한 로마인들이 유대교 개종자들로서 그 전에 유대교신자였다」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힐라리의 말에서는 그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바이של라크의 제안은, 오직 한 사람[그가 제안한지 20년이 지나서]만이 즉 슈뢰[M. Schuerer]만이 지지했다. 그 사실은 쉽게 이해된다.

1) 「만일 시나고그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개종자들이 본질적으로 이방 민족이 다수인 로마 에클레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다수였을 수 있었을까?」라는 반박이다.

2) 복음이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로부터 로마로 전해졌고 그들[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은 바울 사도의 영성[복음선포]이 압도적이었다면, 어떻게 율법주의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이체케와 술츠도 단호하게 바우어의 가설, 로마 에클레시아의 다수는 유대인들[유대계 그리스도신자들]이었고, 그 경향은 유대주의적이었더라는 가설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고데]의 결론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로마 에클레시아는 대부분 이방 민족 그리스도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그 신앙적 경향은 바울 사도적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로마 에클레시아의 형성은 바울 사도에게 간접적으로 유래한다. 왜

냐면 로마 에클레시아의 설립자들은 대부분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로부터 왔고, 바로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에클레시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 에클레시아에 새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신자들도 로마인들 즉 이방 민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 에클레시아를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했다.

물론 이 결론은 로마서의 텍스트 자체의 고통스러운 검증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도달한 이 결론은 즉시 로마서를 로마 에클레시아에 써서 보낸 바울 사도가 채택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더 용이한 설명을 가능하게도 해 준다. 즉 주님에 의하여 바울 사도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 안으로 들어 온 에클레시아를 바울 사도는 편지(서한)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더욱 쉬운 측면이고, 반대로 이미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하는 로마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굳이 편지로 작성해서 그들을 새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은 우리를 보다 더 난처하게 만드는 측면이다.

누가복음 강해

제83강 예수와 권위 (20:1-18)

矢内原忠雄 (권태주 역)

1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수일간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어느 날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20:2). 고 했다. “이런 일”이란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것. 예수가 성전에서 하신 모든 일을 가리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예언자와 그렇지 않은 거짓 예언자를 판별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표준은 만약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멋대로 하는 예언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자는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했다(신명기18:21, 22).

예수님은 전에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 있다. 그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심히 놀라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5:20-26참조). 즉 이 경우에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효과로 증명

되었다.

또 어느 때에 군중이 예수에게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은 적도 있다(요한6:30). 예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가 참 예언자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다 그쳤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의 권위를 문제 삼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들처럼 예수가 예언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기 위하여 물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기 위하여 물었기 때문에 예수는 정면으로 그들에게 답하지 않고 물음으로 물음에 답하였다. 즉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20:3, 4).

여기에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만약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답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만일 “사람에게서” 나와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면 요한을 참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민중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그들은 드디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예수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20:8). 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가 진실하지 못하고 오만한 상대에 대해서 자주 취하신 전법으로 말하자면 쓰카하라보쿠덴(塚原卜傳--室町후기의 검객), 손 안대고 이기는 식이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이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위선자이고 강도의 소굴을 보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진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은 한층 더 예수를 미워하고 살의를 굳혀갔다. 즉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결정적으로 들어난 것은 예수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날부터였다(요한11:53).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의 오만과 허위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서 이를 일깨우는 것이 답 이상의 답이었다.

2

어느 시대에나 참 예언자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위를 문제 삼는 일이 일어난다. 바울이 그 한 사람이었다. 예수에게서 직접 사도로서 선택받지 못하고 또 예수가 택한 사도에게서 권위를 전승받지 못한 바울이 “무슨 권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대들자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갈라디아서1:1)이라고 답했다. 그의 전도로 이방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생애에 들어간 사실 그 자체가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였다.

우찌무라는 소년시절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교회의 안수례를 받아서 목사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우찌무라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희망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있다. 목사의 유자격자가 아닌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누구에게서 이 권위를 받았는가 하고 선교사나 교회 측이 백안시하고 공격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찌무라의 제자인 무교회의 신자들 중의 다수는 안수례는 고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만약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여 “나도 한 마디 묻겠다. 우찌무라의 전도는 하늘에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만약 “하늘에서”라

고 답하면 “그러면 왜 무교회를 인정하지 않는가” 할 것이다. 만일 “사람에게서”라고 답하면 우찌무라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민중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로 신자나 전도자의 권위와 자격을 정한다면 안수례를 받지 않은 자가 집례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그리스도교의 의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바보스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이고 교회 무교회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전도자가 전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보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하든지 무교회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감독, 신부, 목사, 전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첫 싸움을 예수께서 싸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서 그가 열어주신 길을 걷는다. 이 이외에 예수를 믿는 자의 생애는 없다.

3

이 누가복음 20:1-8의 기사가 마태복음(21:23-27)과 마가복음(11:27-33)에도 있다. 즉 이것은 공관복음서의 공통기사의 하나이고 각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있어서 특히 “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바울과 인연이 깊은 누가복음의 특색을 나타낸다고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 이르러 가르치실 때”라고 있어서 교훈을 주로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전 안을 거니실 때”라고 있어서 행동적인 마가복음의 특색이 나타나 있다.

공관복음서 안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되었다고 인정하는데 다른 두 복음서는 마가복음의 기사를 이용했던지 혹은 마가복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붓의 터치 속에 세 복음서는 각각 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재미있다.

4

예수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둔사를 써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오만과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강한 반격을 가하신 것이었다. 보라, 그가 말씀을 이어 백성에게 말씀하신 비유는 예수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 바꾸어 말하면 예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더불어 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이고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셨다.

이 포도원의 비유(20:9-18)는 마태복음(21:33-46)과 마가복음(12:1-12)에도 대동소이한 기사가 있고 공관복음서에 공통기사이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자세한 점까지 하나하나 사실에 맞추어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의를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다.

“포도원”이란 구약 성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여호와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 신약의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상의 나라를 가리키고 “포도원”이라고 하신 것이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과 제사장을 세워서 정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긴 햇수의 역사가 경과한 것을 가리킨다(사무엘전서8:참조).

“농부”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 경우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백성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포도원의 소득”은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파견된 “종”들은 예언자를 말하고 최후에 파견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기사에서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22참조).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외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들이 섬기는 성전 및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일은 이방인의 손에 맡긴다는 예언이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의 염두에는 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포도원 그 자체 즉 이스라엘의 국민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고 예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그 정신은 공통이고 예수의 경우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더욱 비장하다.

5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 말했다(20:16). 그들이 예수의 비유의 의미를 얼마나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느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비장한 태도가 몸에 와 닿는 것을 느끼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농부들이 몰살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에서 새나왔을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연민의 정과 경고의 눈길을 쏟으며 그들의 가슴에 새겨들도록 말씀 하셨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 이 어찌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20:17, 18).

예수가 여기서 인용하신 것은 시편118편22절이다. 그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다시 건축의 비유를 들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예수 자신의 격렬한 대결을 예언하신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건축가들은 “이 돌은 쓸데 없다” 하고 버리고 다른 멋진 돌을 기초로 해서 국가를 건설한다. 그러나 그 집은 홍수에 밀려 떠 내려가고 외적에 밀려 넘어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현명한 건축가는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코너 스톤)로 삼아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천년을 건딘 단단한 돌로서 불도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고 물도 이것을 부술 수가 없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연약한 돌이 아니고 타협을 모르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강의 바위이다. 광산 갱내에 들어가서 유화광의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보라. 바위는 틀림없이 머리에 구멍을 낸다. 화산의 들판에 뒹굴어 용암의 모래에 손을 대어 보라. 모래는 부서지지 않고 손이 터진다. 불품없는 돌이라고 해서 알봐서는 안 된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이 돌이 굴러 떨어지면 그 사람은 부서져 가루가 된다.

이 돌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마태7:25). 이에 반해서 이 돌을 모욕하고 미워하여 이것을 치는 자는 돌은 부서지지 않고 자신이 부서진다. 예수를 믿어 그 위에 한 몸, 한 집, 한 나라를 세우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예수를 조롱하고 버

리는 자는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길이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으라. --예수가 그들을 주목하며 말씀하신 의미는 이것이다.

6

바울은 로마서에서 “걸림돌”의 비유를 들어 말한다.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9:31-33).

여기에 바울이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8:14와 28:16을 연결한 것으로서 전자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라고 있고 후자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있다.

성서에는 돌 혹은 바위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유대가 산으로 된 나라이어서 돌이나 바위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의 머리가 조금 지면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이것에 걸리면 돌은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 넘어져 다친다. “거치는 반석”이란 지표에 크게 나와 있는 바위로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 “믿는 돌”이란 사람을 덮기에 넉넉한 큰 바위로서 그 그늘에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고 서늘하여 밤에 잠을 잘 수도 있다. 전투할 때에는 큰 바위를 방패로서 관문을 지키면 한 명이 능히 만 명을 막기에 족하다. 또 이러한 큰 바위 혹은 암굴이 폭풍우가 몰

아침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등산가가 잘 아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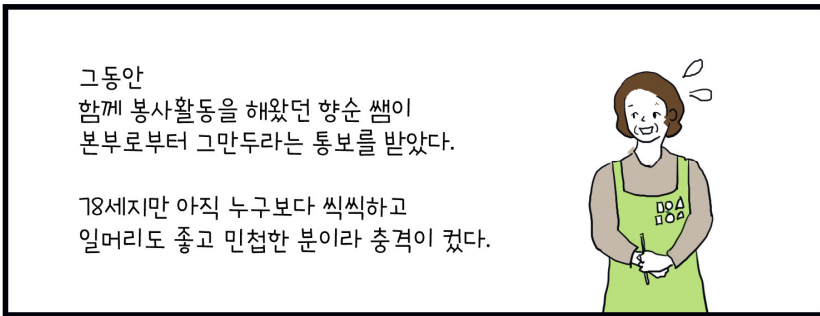
같은 바위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지만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것으로 이것은 같은 돌이 현명한 건축가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에 맞으면 자기를 부수는 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의 비유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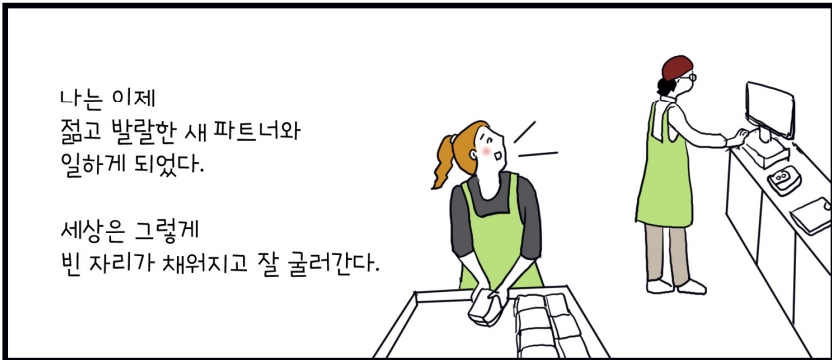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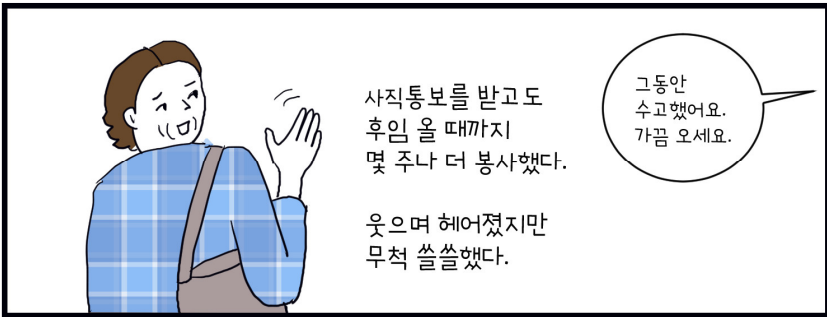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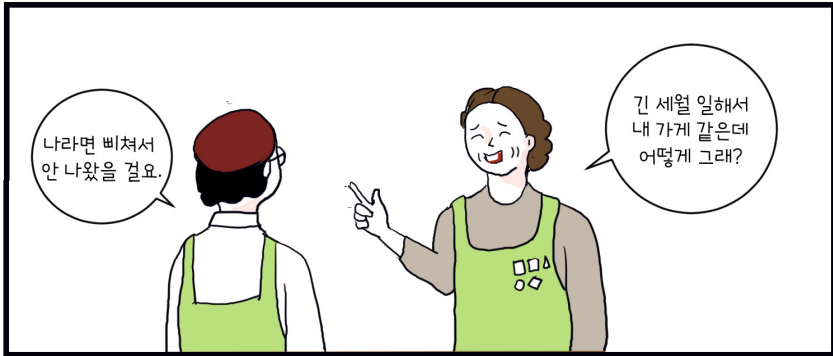
진리는 견고하다. 그 위에 서는 자는 권력자가 넘어뜨려도 결코 영원히 넘어지는 일은 없다. 이에 반해서 진리를 치는 자는 일시 세력을 펼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괴 자멸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자기가 선 곳이 진리의 바위인 것을 아는 고로 어떠한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동요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비웃는 자는 진리 그 자체의 심판을 받아 부서져 흩날리는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의 비유에 이 능연한 선언이 있다. 그 사실 자체가 그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온 증거이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 세상일이란... >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
 (잠 16:23-24).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④)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21호 2025년 2월

인	쇄	2025년	2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